

10 오피니언

사설

학생자치조직 감사 기구 설치하자

학생자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와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에서의 의사결정이 오랜 기간 학생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채 이뤄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서울캠퍼스(서울캠) 학생대표단이 마지막으로 공개한 회의록은 지난 7월에 이뤄진 24차 중운위 회의록이었다. 올해 서울캠 중운위가 개최한 중운위 회의 중 회의록이 공개된 건은 60%, 확운위는 57%에 불과하다고 한다.

서울캠 남우석(철학 2018) 총학생회장은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학생회와 대학본부 간의 협상 전략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회의록 업로드를 늦췄고, 결과적으로 회의록을 공개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을 내놓았다. 서울캠 학생대표단이 전략적 차원에서 회의록을 미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설명이 선행됐어야 했다.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회의록 미공개는 전략적 차원이었다'고 밝히는 것은 그들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국제캠퍼스(국제캠)의 회의록 공개 현황은 더 심각했다. 국제캠 학생대표단이 마지막으로 회의록을 공개한 것은 6개월 전에 이뤄진 18차 중운위 때다. 국제캠 학생대표단은 임기의 절반이 넘는 시간 그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 의사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던 것이다. 2021년 현재까지 이뤄진 국제캠 중운위 중 회의록이 공개된 회의의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에 불과하며, 확운위 회의록과 자치회비 결산 내역은 단 한 차례도 공개되지 않았다.

국제캠 전완주(일본어학 2015) 총학생회장은 지난 KHUiz-On 행사와 이로 인한 혼란을 겪으며

회의록 업로드가 어려워졌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 전 회장의 이 발언은 여러 지점에서 의문과 아쉬움을 남긴다. 지난 4월 KHUiz-On 행사를 두고 국제캠 총학이 많은 학생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배경에는 총학 집행부가 중운위와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행사를 추진했다는 점이 있었다. 또한 행사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학생 여론에 미진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 행사에 대한 학생회장의 입장을 묻는 학생에게 비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 등 '정보공개와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있었다. 국제캠 총학이 '정보공개와 소통'을 위한 중운위 회의록을 공개하지 못한 이유로 KHUiz-On 행사를 꺼내든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대목이다.

오랜 기간 학생 대표단이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규정을 지키

지 않을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이들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조직이 부재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각급 학생회로 대표되는 학생자치기구는 별다른 학생사회 내에서의 견제를 받지 않고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나 견제와 균형 원리에서 벗어난 모든 조직은 퇴보하기 마련이다.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는 학생자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견제와 균형의 추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앙대, 한국외대, 숭실대 등 많은 대학은 중앙감사위원회를 두고 주기적으로 학생자치기구가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재정을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경희대 학생사회도 조속히 이 같은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상설 감시 기구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의무 이행에 충실한 학생자치 문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세시봉

모두를 위한



한진석 기자
1_jinseok@khu.ac.kr

버스를 타고 등교하는 시간을 좋아한다. 우연히 지인을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역에서 학교로 향하는 버스 안, 어떤 사람은 책을 읽고 어떤 이는 창문을 살짝 열어 시원한 바람을 쐬다. 누구나 천 원이 조금 넘는 돈을 쥐면 도시 내 대부분의 곳에 닿을 수 있는 차량. '모두를 위한'이라는 뜻의 라틴어 'omnibus'를 줄여, 우리는 이 교통수단을 '버스'라 부른다.

그러나 그 이름의 시작과 달리 버스는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아닌 듯하다. 여전히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버스는 많지 않다. 고속버스·시외버스·마을버스 중 저상버스 보급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2020년 기준 전국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30%가 채 되지 않는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버스 노선이나 정류장의 위치, 버스의 도착 여부 등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지난 12일에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장애인 이동권 관련 시위가 있었다. 정당하게 탑승권을 구입한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에 오르내리기만 해도 지하철의 운행이 지연되는 현 상황을 보여주는 방식이었다. 전장연과 관련 단체의 일관된 주장은 저상버스의 보급과 각 지하철 역사의 승강기 설치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당초 계획에 따르면 올해 저상버스 도입률은 75%에 이르러야 하지만, 현재 저상버스 도입률은 57.8%로 대수는 4307대에 불과하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학우와 함께 우리학교의 교문을 나선 적이 있다. 귀가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호출한 그는 두 시간이 넘게 택시를 기다렸다. 통계로만 접하던 이야기가 가까운 현실로 다가왔다. 사실 휠체어를 탄 채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확충되는 것은 장애인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버스의 저상화, 승강기의 확충 등은 환자,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모두의 관심으로 '모두를 위한' 교통수단이 현실화된 어느 날, 학교로 향하는 버스에서 그 학우를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학생자치의 내일

리셋, 오히려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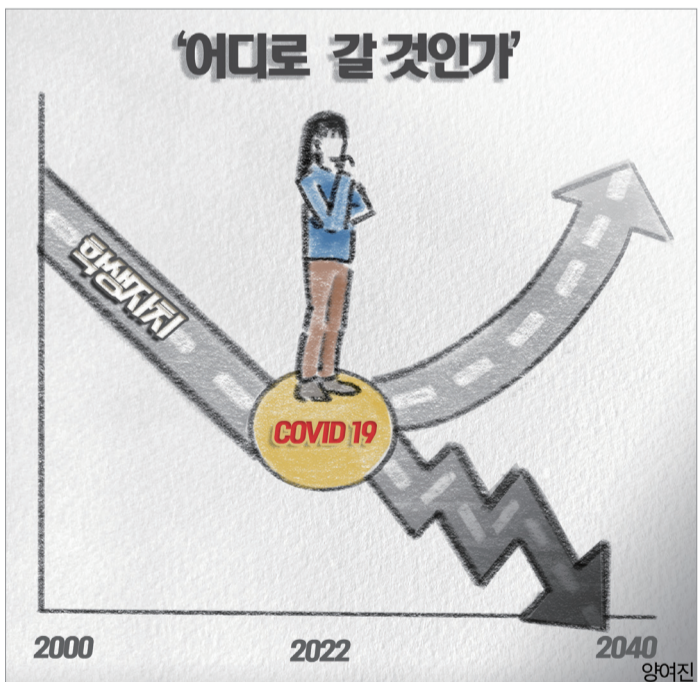
장혜림 기자
vicky21524@khu.ac.kr

'자기 일을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의 자치.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는 '학생자치'는 그런 의미에서 성립하지 못한다. 붕괴하는 학생자치에 대한 경고는 줄곧 제기되어온 담론이었다. 학생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학생회와 이러한 학생회에 무관심한 학생들 속에서 학생자치는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문에 직면하게 됐다.

갑작스레 찾아온 코로나19와 이로 인한 비대면의 일상화는 학생자치의 존속을 더욱더 위협했다. 선·후배 간의 소통 부재와 함께 여러 대학문화의 명맥은 단절됐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같은 이유로 코로나19는 고착화된 학생자치의 모습을 전환시킬 강력한 분기점으로 작용한다. 팬데믹이라는 위기는 오랫동안 계속

되어 오던 학생자치 문화를 초기화했고, 새 시대에 맞는 학생자치 문화가 조성될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관습적인 자치 문화의 대물림에서 벗어나기에 최적의 시점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대면으로의 전환이라는 커다란 변화를 앞두고, 우리는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마냥 비판하기보다 더욱 많은 학생들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코로나19가 마무리될 조짐을 보이는 지금, 학생 자치는 유연한 변화를 필요로 한다. 일상 회복이라는 정상으로의 회귀는 학생자치 발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팬데믹 이전 학생자치 존재의 위기로 다시금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리셋'되었다. 이제는 그동안의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학생자치 문화로의 전환을 준비할 시점이다.



만평 어디로 갈 것인가

경희대학교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한균태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이태영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청솔디자인 | 인쇄 옴니퍼먼디